

5월 31일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순서지

예배의 부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64장-----	다함께
기 도	-----	가족중
성경봉독	-----야고보서 5:13~18-----	인도자
말 씬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	인도자
말씀암송 및 나눔	-----	인도자
합심기도	-----나라와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찬양 -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QR코드를 스캔하면 위의 찬양이 연주됩니다.)



성경봉독 - 야고보서 5장 13~18절

-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 - 2017년 10월 29일 주일예배 설교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우인 목사님 설교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약 5:17) 엘리야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나쁜 때는 없었습니다. 바보 아합 왕과 그를 조종하는 왕비 이세벨 때문입니다. 통탄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제사장 사백오십 인과 아세라 제사장 사백 인에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왕상 18:21)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더 이상 목과할 수 없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습니다. 의인 엘리야의 기도는 자연마저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정말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성정이 같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대로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도 무릅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약 5:14-15)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로서 당시에는 그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봉한 나머지 의사를 찾지 않고 목사나 장로를 찾는 사람들이 요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로를 통한 치유 규정을 정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정 사람과 특정 행위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습니다. 이런 류의 개념은 올바른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구절에서, ‘역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르구메네(energoumene)’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주체(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정 사람이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특별 능력을 받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자체가 주문처럼 영험이 있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우수한 전구라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시켜야 빛이 들어옵니다. 또한 전원에 연결시키는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전구는 기도이고 전선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선

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잇고 또 이어서 전선이 길어지면 불빛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전선이라도 되는 양 목사나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 기도를 받는데, 요즈음 상태가 좋은 목사가 희귀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사람들은 아예 불을 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전구도 깨져버리기 십상입니다. **자신이 직접 전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회로를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조차도 모르는 전선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그 의인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밝은 빛을 얻습니다. 레너드 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아뢰십시오. 그런데 왜 장로를 찾으라 하셨냐 하면, 장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도울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며, 가장 좋은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힘을 보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당연히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시 1:1)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의인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산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분을 의지하여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의인이며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십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여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시 37:25-26)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함께 생각하기

1.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2.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잠잠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목장, 성도회 식구, 직장동료, 동네 이웃,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
3.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간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오늘의 암송구절

야고보서 5장 16절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